마음이 바뀌면 피가 바뀌고, 피가 바뀌면 몸이 바뀐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 정의는 진리구현이 종교요, 신학을 논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신의 정의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한다면 이건 참으로 넌 센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은 신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요, 마음 자체가 영이요, 영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하는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말은 바로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쓰여 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으니 말씀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 님

그런고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요, 마음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가 바로 영이요, 피가 마음이요, 마음 자체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피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게 움직이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좀 세고 좀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형제의 비유를 잘 맞추는 사교적인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이요, 마음이 바로 곧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이라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그 마음이 바로 곧은 마음을 가지면 피가 곧아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 피가 잘못된 피로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것은 마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을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피가 썩어서 결국은 죽을병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영생할 마음을 가지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생의 확신을 갖는 그 마음 때문에 피가 영생의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경이나 불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불심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고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건강한 몸의 비결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를 짓이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는고로 이것이 곧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죽지 아니할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건강한 몸은 바로 운동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건강해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점점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피가 영혼인 고로 죽은 사람의 피는 살아있는 자식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간다, 천당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세계 만민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 세계 만민들이 다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나라로 전 세계를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생을 주는 메시아, 영생을 주는 정도령, 영생을 주는 생미륵불을 만난고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메시아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만 없어지면 피가 썩지 않아

그런고로 오늘날 세계 만민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나라는 의식만 없어지게 되면 피가 썩지 않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피가 썩지 않고 늙지 않는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과 같이 승리제단에 나와 생명과일이요,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이슬을 먹게 되면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하여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승리제단 나와서 자유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자유율법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온전히 맡겼다가 되면 하나님의 진액이 되는 은혜가 연결되는 고로 날로날로 그 피가 맑아지고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승리제단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나오기만 나오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또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여 여러분들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1년 1월 16일 말씀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인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강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기까지 한 번에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 십 번 넘어지고 수 십 번 이제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한테 지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이기게 되어서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성품은 인내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을병에 걸렸다손 치더라도 왜 의사들이 죽을 병 걸린 것을 그 장본인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그걸 말하게 되면 본인이 쉽게 포기하고 그대로 견디고 참는 힘이 없어져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을 다뤄본 통계에 의해서 그 병명을 안 알려주고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환자에게 죽을병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귀는 인내력이 없고 하나님은 바로 인내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력이 강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도 그 병마와 투쟁해서 결국은 그 암이 낫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 병마 자신이 포기하고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①

영육분리의 발단과 그 과정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막연히 믿는 것은 왜인가? 대다수 사람들이 신비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이러한 질문을 피의 원리와 작용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사람이 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의 오류를 인류의 정신사적 발달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사람은 뭐든지 분리·분석하여 보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은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주체와 객체, 신과 인간, 영혼과 육체 등으로 쉽게 분리하여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깊이 있고 제대로 아는 지식의 체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을 사실로 착각하여 받아들이는 낮은 단계의 의식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람은 어린 아기 때부터 감각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분지어 지식과 정보를 판독하고 축적하여 고정관념화시키게 된다.

인류역사의 진화의 과정도 이와 흡사하다. 원시시대와 신석기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마치 어린 아기와 같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현상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인간의 의식을 사로잡게 된다. 그 당시는 농경 모계사회로 생산성이 중요시되고, 땅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청동기 부계사회가 등장하자 이성·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청동기 남성적 성격은 신석기의 여성적 성격을 배척하고 파괴하며 등장하게 된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소년기와 같다. 수많은 세계의 신화와 고고인류학을 통하여 입증된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는 이 시대상을 '남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의 '여자신'을 살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같이 기원전 2000년경, 신석기와 청동기의 전환기에 일어난 하늘과 땅의 균열,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의 대립은 서구에 있어서 하나인 전체를 이원론적으로 개별화시키는 근간이 되었다.

이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보는 심각한 사상의 균열을 낳는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의 기간을 '차축시대'라고 하였는데, 이 시기는 '인류의 성숙한 자아'가 형성되는 때라고 하였다. 인류의 정신적 성숙도에 있어서 이 시기는 7세 정도로서 개체적 자아가 뚜렷이 형성되는 때이다. 저 유명한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석가 같은 동양의 성인들도 이 기간 안에 모두 태어났다.

어느 정도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 차축시대의 인물들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이 확연히 구분되기에 이른다.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에 그리이스 철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영육이원론'은 그대로 중세 기독교 교리에 흘러들어와 잘못된 영육분리사상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암울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에겐 유일한 삶의 피난처로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 데카르트에 의해 '물심이원론(物心二元論)' 철학으로 확고히 고정화되어진다.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인류의 영육의 이원론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기원전 2천 년을 전후로 하여 남성적 성격(하늘, 남자신, 빛)과 여성적 성격(땅, 여자신, 어둠) 사이의 균열로부터 발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과 육이 근원적으로 분리된 배경과 원인을 유추해 보았다. 애초에 그 구분은 영육의 본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구분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겉모습 차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의 차이는 그 표현되어지는 양상에 의해 차이가 생길 뿐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은 같듯이 영혼과 육체의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땅과 여자는 육체적,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고, 하늘과 남자는 정신적, 비물질적인 것을 상징할 뿐이다.

더욱 쉬운 예를 들자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물과 수증기의 관계에서와 같이 그 모양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영혼이든 육체든 같은 생명(피)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사물의 다른 양상에 의해 막연히 그 본질까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인간의 이성은 때론 사물을 인식할 때에 그것의 전체성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단편화시켜 왜곡한다. 또한 사물의 속성, 변화, 유동성과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을 사실로서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영육의 이원성이라는 것은 사실의 체계가 아니라 해석(인식)의 체계일 뿐이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 위에 서 있다.

조금만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 있을 때 마음과 영혼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영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종교적 믿음의 필요성에서 발생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의 파다한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는 달리 자유롭고 영원히 살 것만 같은 미지의 영계(靈界)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영육의 이원론적 분리는 환상적 '믿음의 체계'가 되고 만다.

이 믿음의 체계는 이 연재에서 시종일관 논하고 있듯이 '영생의 대치물'과 '고통스런 삶의 대치물'로 작용한다. 불완전한 정신적 자아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의미를 찾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자아를 확장하여 에고를 만족시키려는 철저한 '피의 본성의 뒤틀림'임이 틀림없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의 본성이란 인간이 기쁘고 즐겁게 영원한 생을 누려본 경험적 세계를 말한다.

셋째, 영육분리론자들은 유령현상, 유체이탈 등 일련의 '심령현상'들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령현상들도 사실을 알고 보면 피의 원리에 입각한 과학적 증거를 들어 영육일체론적(靈肉一體論的)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설명 가능하게 할 뿐이다.

이것은 뒤에 (피의 원리)를 통한 심령현상의 과학적 해석에서 자세히 밝히게 될 것이다.*

김주호 승사